

격려사

대한불교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입니다. 일제강점기 파승가적 정책에 맞서 우리 선사 스님들은 선원 수좌들에 대한 지원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선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셨습니다.

선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유교법회를 통해 청정승단을 회복하고, 선을 통한 수행가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정화불사의 산실로 청정 비구승의 중심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계종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선학원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안타까운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선학원이 설립정신을 잇는 채 우리 종단의 종지종풍이 무색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찰을 등록받는 등 세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선학원 임원진은 조계종단의 종헌종법을 따를 수 없다는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하고 선학원 승려증을 발행하는 등 조계종을 탈종하여 별도 종단을 설립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사스님들의 선학원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선학원에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사찰의 창건주인 조계종 스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다수의 창건주 및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 승려가 아닌 조계종 승려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 재산이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등기되어 있어 선학원 이사회로부터 불이익한 조치 받는 것을 우려하여 그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학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종도들은 선학원이 자기 정리를 통해 청정 비구승의 수행공동체를 회복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는 조계종 승적의 선학원 창건주 및 분원장 스님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고, 수행정진과 불법홍포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욕과 정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는 종단 차원의 구성이기에, 향후 선학원과의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종단 집행부는 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의 요청을 받아, 미등록법인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 조치를 금년 7월 30일까지 유예하는 종법 개정안을 금번 중앙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확고부동한 인욕(忍辱)과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의 진심이, 선학원 임원진에도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선학원 이사회는 “노하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불도를 알지 못하며, 다툼으로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추진위원회의 향후 노력에 화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현대 불교사의 증명으로서 참석해 주신 원로의장 밀운대종사와 원로의원 대종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어려운 소임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주신 법등스님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리며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추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총회 의원 스님, 중진 스님, 선원 수좌스님들에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선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위원장 스님을 비롯한 위원스님들의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